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4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8)	봉헌 (217)	성체 (165)	파견 (270)
---------	---------	----------	----------	----------

미사 전례 예절

성당에서의 기본 예절

- 미사 시작 20~30 분 전에는 성당에 도착 하여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여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미사 전의 발성연습과 성가연습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휴대폰을 꺼 놓습니다

-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고 반드시 성당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를 향해 (대)십자 성호를 그은 후 두손(기도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합니다.

- 여러 차례 성당을 드나들 경우, 대부분의 교우 분들은 성수를 처음에 한 번만 찍고 반복해서 안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성수는 성당에 들어갈 때 마다 매번 찍어야 합니다.

성당에서 나갈 때에는 성수를 찍지 않습니다.

- 성당 안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물이나 음료, 먹거리 등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주임 신부님 또는 지도(담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14	이 마틸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10/21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10/28	이 마틸다	이 요한/황 스텔라	황 스테파노
11/4	유 요한	이 바오로/손 데레사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76	\$	\$4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2	이 요한/ 이 마틸다	10/2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29	유 요한/ 유 마리아	11/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0/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1/10	김 마론/ 김 헬레나
10/13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1/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0/20	김 요아킴/ 고 안나	11/24	황 가롤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길이 주는 선물

-김효정 엘리사벳 | 영화배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호기심에 순례길 여행을 얼떨결에 결정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티아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십 년이 지났지만 제게는 늘 어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반에는 이쯤이야 거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빨리 걸다가 이틀 만에 제 발목은 허벅지 만큼 두꺼워졌습니다. 한걸음도 고통 없이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여행을 시작한지 삼일 만에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비로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고행과도 같은 여행이란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방의 무게를 덜기 위해 다시 옷가지와 음식과 생수, 모든 것들을 최소화하고 나니 실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짊어진 무게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만함도 없애니 뻗뻗하게 세웠던 제 고개는 수그러지고 걸음도 천천히 보폭도 짧게 변하면서 그 여행의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의 모습에 질려서 고개를 숙이고 오늘의 목적지를 잘 도착하는 바람뿐 제 머릿속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온통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행 전 복잡한 문제들은 머릿속에서 꺼낼 여유조차 없이 그저 목적지를 향해 아픈 다리를 이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아름다운 풍경이 제 시야에 들어오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날까지 매일 매 순간 아프고 힘들 거야. 그러니 아프다고 그만 외치자. 무릎 밑의 고통에 대해선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맘먹고 나니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과 마음을 채우며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발목은 아파서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0 월 4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10 월 8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 월은 '목주기도 성월', '전교의 달'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목주기도 5 단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주기도는 미사 30 분 전에 시작합니다.

Homeless Feeding (11/3 , 7:00am-12:00pm)

홈리스를 위한 조식 봉사가 St. Vincent de Paul 에서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소: 300 Baker St, Bakersfield, CA 93305

가을 축제 Nov 4th 2018

11 월 4 일 가을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봉사를 기다립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제 입가는 미소로, 제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산티아고 길을 걸었습니다. 타들어 가는 태양에 눈물 자국이 두 줄로 선명하게 제 얼굴에 자리 잡았을 때 즈음 어느덧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 저는 그때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행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감사하다는 몇 마디를 드리자 갑자기 의식도 앓던 고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제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옛날의 잘못을, 기억에서 물어버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제 안에는 성령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어쩔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사제들도 고해성사를 보나요?

축성은 '봉헌하여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인 consecratio를, 축복은 '좋은 말을 하다'는 의미인 benedictio를 번역한 말입니다. 미사 때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품성사, 주교품 예식, 성당 축성 등에서 축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엔 사람이나 사물이 축성의 대상인 것이죠. 축복도 사람이나 사물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수하든지, 성물 등에 성호를 그으며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지요. 축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성직자들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